

침례와 주의 만찬

침례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

1.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침례와 오순절(주후 30년)이후 그리스도교 침례/세례와의 관계:
회개를 위한 침례,
그리스도 임직,
그리스도인 침례.
2. 침례를 베푸는 방법:
뿌림과 침수,
구약시대의 피 뿌림 또는 정결례,
baptizo 또는 baptima의 의미.
3. 피침례자의 자격:
유아,
믿는 자(신앙고백자),
종교 개혁가들과 재침례파,
신앙(운동)의 자유문제.

4. 침례와 믿음과 회개와의 관계

믿음과 회개,
신앙고백과 침례,
수정과 출산,
사랑과 결혼

5. 침례를 베푸는/받는 이유와 목적:

죄 사함을 위해,
구원받기 위해,
구원의 표,
언약의 표/신구약의 차이,
받은 구원을 인침.
천국시민권,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되는 시점

6. 물 침례와 성령 침례/세례의 관계

7. 침례/세례와 할례와의 관계:

유야세례와 할례와의 관계

침례

침례는 구원을 받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정식회원이 될 수 있고, 교회가 행하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예식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신자가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이다. 결혼하는 커플이 혼인서약을 하듯이 침례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례서약을 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새 계약,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엄숙한 서약이다.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성별, 인종,

침례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회복되는 엄숙한 기독교 예식이다.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을 모시게 되는 시간이다. 침례는 성령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단히 자기 변혁을 꾀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다.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보증받는 시간이다.

침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예식이며 죄와 싸우는 십자군에 입단하는 시간이다. 죄된 모든 것을 부단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부단히 사는 작업의 출발선이다.

할례와 침례(골 2:11-15)

-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 [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와 침례(골 2:11-15)

-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례와 침례(골 2:11-15)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침례탕(Mikvah)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하는 유대교인들의 침례 의식(Tevilat Keilim). 이처럼 유대교인들의 침례는,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뿐만 아니라 율법과 규례가 정한 모든 침례 곧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개개인의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되돌려놓는 의미를 갖는 반복적인 의식이다.

할례와 침례(골 2:11-15)



예수님(Yehshuah)을 그리스도(Moshiach)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교(Messianic Jews)의 랍비가 유대인 개종자에게 베풀고 있는 침례.

할례와 침례(골 2:11-15)



좌측은 예루살렘 근교인 에인 케렘(침례 요한의 고향)에서 발굴된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의 의식용 침례탕이고, 우측은 2019년 3월 서울 남산 인근에 설치된 유대교 의식용 침례탕(Mikvah)의 모습.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 골 2장 11절에서 할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비유.
- “육의 몸(죄의 본성)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와 동일.
- 골 2장 12절에서 “너희가 침례로”(en to baptismo)는 “너희가 침례 가운데서” 또는 “너희가 침례 받을 때”라는 뜻.
- “너희가 침례로”는 (공식적, 의식적) 시간을 의미.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육체부활의 약속인 영의 부활, 곧 구원을) 받았다.”(12절)는 뜻이다.
- 12절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와 동일.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 골 2장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와 동일.
- 골로새서 2장 13-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초기성화, 교회입문):
-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율법)들이 들어 있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
-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뜻.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나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말은:
-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와 동일.

할례와 침례의 관계

-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와 동일.
- 침례의 모형은 할례나 피 뿌림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홍해도하(광야교회입문)에 있다.
- 주의 만찬의 모형도 만나와 반석의 물에 있다.

할례와 침례의 관계

- 광야가 교회의 모형이고,
- 구름기둥이 성령님의 모형이며,
- 광야행진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순례하는 점진성화의 모형이다.
- 요단강 건너 가나안땅이 죽음 너머의 하늘 가나안 땅의 모형이기 때문이다(고전 10:1-4).
- 그 밖의 침례의 모형은 성전뜰의 물두멍,
- 주의 만찬의 모형은 성소의 진설병(매주 바꿈)에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골 3:1-3)

골 3장 1절

-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은 사단(죄)의 노예살이를 했던 영적 이집트를 떠
나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
- “위의 것을 찾으라.”는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광
야라는 교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마치 히브리인들이
‘땅의 것’ 곧 지상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전진하였듯
이, 하늘 가나안땅이라는 “위의 것”에 방향을 고정
하고 전진하라는 뜻.

“위의 것을 찾으라”(골 3:1-3)

골 3장 2절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떠나온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 가나안땅에 집중하라는 뜻.
-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땅,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

“새 사람을 입었다.”(골 3:10-11)

골 3장 10절

- “새 사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 가운데서 새 사람(거듭남, 중생, 새로운 본성)을 곧 초기성화를 입었다는 뜻.
-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는 초기성화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점진성화를 이루는 자라는 뜻.

“새 사람을 입었다.”(골 3:10-11)

골 3장 10절

- 초기성화의 모형과 그림자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진입한 것이고, 점진성화의 모형과 그림자는 행군을 시작하여 약속의 땅에 다가간 광야순례.
-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축복을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점이 초기성화이고,
- 하늘 가나안땅 예루살렘 지성소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의 신앙순례가 점진성화.

할례와 침례의 관계

-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변호하는 이들은 세례의 모형을 할례의식에서 찾는다.
-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외적 표시를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말한다.
- 반면에 침례는 그 어떤 외적 표시도 몸에 남기지 않는다.
-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다. 교회(영적 이스라엘은)는 침례를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 침례는 남녀 모두에게 시행되지만 할례는 남자에게만 시행된다.

할례와 침례의 관계

- 침례는 나이에 상관없지만, 할례는 태어난 지 팔 일째 날에 시행한다.
- 할례와 이방인 개종침례는 토라와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유대교인(계명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받지만, 침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해서 죽고 매장되며 부활하기 위해서 받는다.
- 할례는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것이지만, 침례는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것이다.

할례와 침례의 관계

- 그리스도인 침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침례, 옛세네 파의 정결침례, 유대교의 개종침례와 정결침례와도 구별된다.
- 유대교에서의 침례(tevilat keilim)는 미슈나 구전이 정한 정결례(Tohoroth)이지 회개를 위한 침례가 아니다. 유대교인들의 침례는,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뿐 아니라 율법과 규례가 정한 모든 침례 곧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개개인의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되돌려놓는 의미를 갖는 반복적인 의식이다.

할레와 침례의 관계

- 2019년 3월에 유대교인들의 정결침례와 이방인들의 개종침례를 위해서 서울 남산 인근에도 침례탕 (mikvah)이 생겼다.
- 유대인들은 출산이나 월경, 배우자와의 잠자리 뒤에도 침례탕에 들어가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침례탕의 물은 빗물이나 강물처럼 살아 있는 물이어야 한다. 남산에 설비된 유대인 침례탕은 빗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증언들

- 약식세례가 합법화된 것은 1311년 라벤나 공의회에 서였다. 적어도 12세기까지는 침수세례만 베풀어졌다.
- 약식세례가 시행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이다. 당시 몰려온 많은 군인들에게 한꺼번에 침례를 베풀면서 생겨난 편법이다. <그리스도교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1972)에도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리스도교의 증언들

-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는 설명을 싣고 있다.
- AD 100-200에 출판된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전승>에 따르면, 침례는 몸을 세 번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었다. 성부께 대한 신앙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고백, 성령께 대한 신앙고백 후 각각 한 번씩 침수하였다. 침례의식 때 행한 신앙고백이 삼위 일체 신앙고백이었음을 말해준다.

결론

- 구원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엡 2:8)
- 구원의 수단: 신자의 믿음 (예수님과 부활을 믿는 믿음, 새 생명의 잉태, 수정, 배아, 태아)(엡 2:8)
- 구원의 시간: 신자의 침례 (공식적, 의식적, 선언적)(골 2:12)
-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엡 2:10)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서울신학대학교 조기연 교수는 2012년 1월 26일 ‘세례예식-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핵심’이란 연구발표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세례 우물(세례탕)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며, 물에서 나오는 세례의 영성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기에는 상징적 의미만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조기연 교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물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심판의 도구로도 나타나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Tomb, 무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Womb, 자궁) 이중적 의미로 쓰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2.01.30.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조기연 교수는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삶을 모두 상징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애굽의 병거들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홍해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며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죽음과 삶이라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조기연 교수는 “그래서 과거 세례를 베풀던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매우 깊은 상징들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계단이다.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계단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계단인데, 세례자는 이 계단들을 걸으며 주님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물을 통과해 다시금 부활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조기연 교수는 “이처럼 물, 그리고 세례는 초대교회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세례예식은 교
회의 매우 중요한 예식 중 하나였고 그것을 베풀던 장
소도 매우 컸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세례는 유
아 중심으로 행해졌고 그 장소도 작아졌다. 자연스레
세례의 상징과 그로 인한 기독교적 깨달음들이 사라
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조기연 교수는 “매우 작은 용기에 물을 담아 행하는 현대 교회의 세례예식은 그 본래 신학적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 조 교수는 “교인들은 세례예식을 직접 체험하는 것만이 아닌, 단지 세례우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조기연 교수는 “세례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세례예배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례 교육을 해야 하고, 그 예식 또한 매우 성대하게 거행해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01.26.

세례 받은 날도 생일처럼 기념해야

“세례식 성대하게 열어 그 본래 의미 각인시켜야”

- 말테 리노 선교사(독일)는 “그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면 세례 의식을 훨씬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며 “흰 가운을 입고 이마와 손등에 십자가 상징을 새기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기독교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날이지만 하루 행사로 그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태어난 날을 기억하듯 가정과 교회에서 세례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신앙을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리노 선교사는 강조했다.

종교개혁가들이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고집한 이유

- 종교개혁가들(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이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고집한 이유는 성서적인 데 있지 않고, 정치적인데 있었다.
- 특히 츠빙글리와 칼빈은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 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회복(환원)코자 했고, 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보았다. 따라서 악기사용, 성화 및 성상 사용을 금하였으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성인 세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칼빈은 “침례란 단어
가 몸 전체가 잠기는
침수(immerse)를 의
미하고, 초대교회가
사용한 형식(form)
이었던 것이 분명하
지만, 침수든 약식이
든 중요치 않기 때문
에 교회들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채택
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524

INSTITUTES OF THE

기독교 강령 4권 15장 19절

BOOK IV:

adventitious farrago is, still it is lawful for one being buried or polluted by extraneous observances. Whether the person baptised is to be wholly immersed, and that whether once or thrice, or whether he is only to be sprinkled with water, is not of the least consequence: churches should be at liberty to adopt either,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climates, although it is evident that the term *baptise* means to immerse, and that this was the form used by the primitive Church.²

20. It is here also pertinent to observe, that it is improper for private individuals to take upon themselves the administration of baptism; for it, as well as the dispensation of the Supper, is part of the ministerial office. For Christ did not give command to any men or women whatever to baptise, but to those whom he had appointed apostles. And when,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per, he ordered his disciples to do what they had seen him do (he having done the part of a legitimate dispenser), he doubtless meant that in this they should imitate his example. The practice which has been in use for many ages, and even almost from the very commencement of the Church, for laics to baptise, in danger of death, when a minister

¹ Vid. Calv. in Epist. de Fugiendis illicitis sacris. Item, Vera Ecclesia Reformanda Ratio. See also infra, chap. xvii. sec. 43. As to the form of baptism, see Cyprian, Lib. iv. Ep. 7.

² French, “Au reste, c'est une chose de nulle importance, si on baptise en plongeant du tout dans l'eau celui qui est baptisé, ou en repandant seulement de l'eau sur lui: mais selon la diversité des regions cela doit demeurer en la liberté des Eglises. Car le signe est représenté en l'un et en l'autre. Combien que le mot mesme de Baptiser signifie du tout plonger et qu'il soit certain que la coutume d'ainsi totalement plonger, ait été anciennement observée en l'Eglise.”—Moreover, it is a matter of no importance whether we baptise by entirely immersing the person baptised in the water, or only by sprinkling water upon him, but,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countries, this should remain free to the churches. For the sign is represented in either. Although the mere term Baptise means to immerse entirely, and it is certain that the custom of thus entirely immersing was anciently observed in the Church.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칼빈은 유아세례가 하나님
이 제정한 것이 아닌 인
위적 성례이고, 타락한 호
기심, 어리석은 재능, 사려
깊지 못한 채용이며, 하나
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
한 성례는 설 자리가 없다
는 주장들이 있으나(1절),
“옳고 그름은 외적 의식들
(ceremonies)에 있지 않
고, 약속과 영적 신비들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CHAP. XVI.

CHRISTIAN RELIGION.

529

기독교 강령 4권 16장 1-2절
farther to illustrate the subject of baptism.¹ The argument by which paedobaptism is assailed is, no doubt, specious—viz. that it is not founded on the institution of God, but was introduced merely by human presumption and depraved curiosity, and afterwards, by a foolish facility, rashly received in practice; whereas a sacrament has not a thread to hang upon, if it rest not on the sure foundation of the word of God. But what if, when the matter is properly attended to, it should be found that a calumny is falsely and unjustly brought against the holy ordinance of the Lord? First, then, let us inquire into its origin. Should it appear to have been devised merely by human rashness, let us abandon it, and regulate the true observance of baptism entirely by the will of the Lord; but should it be proved to be by no means destitute of his sure authority, let us beware of discarding the sacred institutions of God, and thereby insulting their Author.

2. In the first place, then, it is a well-known doctrine, and one as to which all the pious are agreed,—that the right consideration of signs does not lie merely in the outward ceremonies, but depends chiefly on the promise and the spiritual mysteries, to typify which the ceremonies themselves are appointed. He, therefore, who would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칼빈은 침례의 모형을 할례로 보았는데, 그것이 치명적 실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이는 의식의 차이를 제외하고 할례에 적용되는 모든 것이 침례에도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고 같은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CHAP. XVI.

CHRISTIAN RELIGION 이복교 강해 4권 16장 4절 531

4. There is now no difficulty in seeing wherein the two signs agree, and wherein they differ. The promise, in which we have shown that the power of the sign consists, is one in both—viz. the promise of the paternal favour of God, of forgiveness of sins, and eternal life. And the thing figured is one and the same—viz. regeneration. The foundation on which the completion of these things depends is one in both. W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internal meaning, from which the whole power and peculiar nature of the sacrament is to be estimated. The only difference which remains is in the external ceremony, which is the least part of it, the chief part consisting in the promise and the thing signified. Hence we may conclude, that everything applicable to circumcision applies also to baptism, excepting always the difference in the visible ceremony. To this analogy and comparison we are led by that rule of the apostle, in which he enjoins us to bring every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o the analogy of faith (Rom. xii. 3, 6). And certainly in this matter the truth may almost be felt. For just as circumcision, which was a kind of badge to the Jews, assuring them that they were adopted as the people and family of God, was their first entrance into the Church, while they, in their turn, professed their allegiance to God, so now we are initiated by baptism, so as to be enrolled among his people, and at the same time swear unto his name. Hence it is incontrovertible, that baptism has been substituted for circumcision, and performs the same office.

5. If baptism be substituted for circumcision, whether or not baptism is justly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이제 모든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그토록 강력한 지지를 받는 유아세례가 인위적 고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도들의 손에 의해 침례를 받은 유아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는 성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의 제기가 부질없다(그럴싸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침례를 받은 가족을 언급할 때 분명하게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행 16:15,32). 지각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이 점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러한 주장이 옳다면, 같은 방법으로, 성찬식에서 여성을 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들이 사도시대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됐다는 성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법칙에 만족한다. 성찬 의식의 본질을 숙고 할 때,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배찬 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침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정 된 목적을 참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연장자들에 못지 않게 아이들에게도 적절(적용 할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아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침례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유아세례가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그들이 대중 사이에 퍼뜨린다는 주장은 부끄러운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기원을 사도시대에까지 추적하지 아니한 저자가, 고대의 저자까지도, 없기 때문이다.

침례에 관한 칼빈의 입장

534

INSTITUTES OF THE

기독교 강요 4권 16장 8절 BOOK IV.

come to him, nothing is plainer, than that more is
8. Every one must now see that paedobaptism, which receives such strong support from Scripture, is by no means of human invention. Nor is there anything plausible in the objection, that we nowhere read of even one infant having been baptised by the hands of the apostles. For although this is not expressly narrated by the Evangelists, yet as they are not expressly excluded when mention is made of any baptised family (Acts xvi. 15, 32), what man of sense will argue from this that they were not baptised? If such kinds of argument were good, it would be necessary, in like manner, to interdict women from the Lord's Supper, since we do not read that they were ever admitted to it in the days of the apostles. But here we are contented with the rule of faith. For when we reflect on the nature of the ordinance of the Lord's Supper, we easily judge who the persons are to whom the use of it is to be communicated. The same we observe in the case of baptism. For, attending to the end for which it was instituted, we clearly perceive that it is not less applicable to children than to those of more advanced years, and that, therefore, they cannot be deprived of it without manifest fraud to the will of its divine Author. The assertion which they disseminate among the common people, that a long series of years elapsed after the resurrection of Christ, during which paedobaptism was unknown, is a shameful falsehood, since there is no writer, however ancient, who does not trace its origin to the days of the apostles.

성만찬은 모든 예배서 진행돼야

- 조기연 서울신학대 교수는 2014년 5월 22일 “성만찬은 모든 예배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성만찬이 예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구속사는 물론 종교개혁 정신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4회 신춘포럼)
- 조 교수는 “개혁자 칼뱅은 당시 성찬식을 ‘일 년에 한번 하는 것을 마귀의 발명품’이라고 비난하고 ‘기독교인 모임에서는 성찬식을 적어도 매주 한 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요한 웨슬리도 예수님은 가능한 한 자주 성만찬을 거행하라고 했으며 평생 4~5일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성만찬은 모든 예배서 진행돼야

- 그는 “현대예배는 다분히 감성적이어서 ‘예배’라기보다 신앙 강화를 위한 ‘부흥집회’ 또는 ‘전도 집회’의 성격이 짙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사역에 대한 구속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선 기자. 출처: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14.05.23>

서울신학대학교 조기연 교수



주의 만찬에 관한 칼빈의 입장

만찬은 간음으
로 더럽혀졌다...
이 모든 의식이
버려지고, 성찬
이 적어도 일주
일에 한 번 교회
에 매우 자주 배
찬된다면, 성찬
은 가장 바람직
하게 거행될 것
이다.

600

INSTITUTES OF THE

기독교 강령 4권 17장 43절 BOOK IV.

I appeal to all who have the least zeal for piety, whether they do not evidently perceive both how much more brightly the glory of God is here displayed, and how much more abundant spiritual consolation is felt by believers than in these rigid and histrionic follies, which have no other use than to impose on the gazing populace. They call it restraining the people by religion, when, stupid and infatuated, they are drawn hither and thither by superstition. Should any one choose to defend such inventions by antiquity, I am not unaware how ancient is the use of chrism and exorcism in baptism, and how, not long after the age of the apostles, the Supper was tainted with adulteration; such, indeed, is the forwardness of human confidence, which cannot restrain itself, but is always sporting and wantoning in the mysteries of God. But let us remember that God sets so much value on obedience to his word, that, by it, he would have us to judge his angels and the whole world. All this mass of ceremonies being abandoned, the sacrament might be celebrated in the most becoming manner, if it were dispensed to the Church very frequently, at least once a-week. The commencement should be with public prayer; next, a sermon should be delivered: then the minister having

주의 만찬에 관한 칼빈의 입장

가장 확실히,
일년에 한 번
으로 주의 만
찬의 시행을
규정하는 관
습은, 그것이
도입되었을
수 있는 수단
에 의해, 마
귀의 발명품
이다.

602

INSTITUTES OF THE

기독교 강령 4권 16장 46절 BOOK IV.

46. Most assuredly, the custom which prescribes communion once a-year is an invention of the devil, by what instrumentality soever it may have been introduced. They say that Zephyrinus was the author of the decree,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believe that it was the same as we now have it. It may be, that as times then were, he did not, by his ordinance, consult ill for the Church. For there cannot be a doubt that at that time the sacred Supper was dispensed to the faithful at every meeting; nor can it be doubted that a great part of them communicated. But as it scarcely ever happened that all could communicate at the same time, and it was necessary that those who were mingled with the profane and idolaters, should testify their faith by some external symbol, this holy man, with a view to order and government, had appointed that day, that on it the whole of Christendom might give a confession of their faith by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The ordinance of Zephyrinus which was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새 사람 교회

감동과 감격, 감복이 넘치는
삼중감동의 삶이
펼쳐지는 교회

MEMBER LOGIN

ID

PASSWORD

☐ ID/PW 저장

| ID/PW 분실

목사님소개

예배/모임 안내

찾아오시는길

온라인 성경

창립 30주년

자 연 실 방

새 사람운동본부

강남새사람교회

의 료 봉 사

주일증언

TESTIFY



제목: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전대 설교자: 김상기
일자: 2015.09.20

화요성경공부

STUDY

정의를 물 같이...	[2015.09.01]
마함 왕의 미움...	[2015.07.07]
호렙산의 세미한...	[2015.06.30]
반신앙적 시대권...	[2015.06.23]

공지사항

NOTICE

- ▶ 화요성경공부 2학... [2015.05.06]
- ▶ 제6회 다시걷기 ... [2015.05.06]
- ▶ 성서현장연수 [2015.04.14]
- ▶ 제6회 다시걷기 [2015.04.14]
- ▶ 춘계추모연합예배... [2015.04.14]

특강/세미나

SEMINAR

- ▶ 성경 꿰뚫어 읽기... [2015.09.07]
- ▶ [사순절기도회] ... [2014.04.18]
- ▶ [사순절기도회] ... [2014.04.18]
- ▶ [사순절기도회] ... [2014.04.16]
- ▶ [사순절기도회] ... [2014.04.15]



새사람교회 김중기 목사

프로필

前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

前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前 연세대학교 총장직무대행

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現 새사람교회 책임목사

금주의 주보

행사동영상

성경이여쓰기

새사람가정목회상담원 :

 전문상담분야

성인상담

청소년상담

미술치료

예배모임 안내 :

[새사람신앙강좌]

화요:오후7:30새사람교회

수요:오후7:30강남교육관

[주일예배]

1부 - 오전 8:45

2부 - 오전 10:00

3부 - 오전 11:30

4부 - 오후 2:00

[주중 집회]

목요일터모임: 새벽6시/본당

금요일도모임: 저녁8시/영성예배실

교회행사



‘세상에 맞설 불멸의 힘’ 성찬(聖餐), 은혜를 음미하다

- 성찬으로 회복되는 예배

현재 한국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의 시행 빈도수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일 교단이라도 담임목회자의 신학적·목회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차례이거나 조금 많은 경우에는 매월 한 차례 행해지고 있다. 한국개혁신주의연대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고신 합신 교단 산하 421개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찬의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교회의 60% 이상이 연 2회 이하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는 1%에 불과했다.

‘세상에 맞설 불멸의 힘’ 성찬(聖餐), 은혜를 음미하다

- 신학자들은 성찬을 통해 예배정신을 회복하면 양극화 되고 침체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현재 한국교회는 성찬에 담긴 구속사적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단편적 의미(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만 알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예장 고신 교단의 경우 될 수 있는 한 자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 1년에 2차례 정도 한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성찬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18-03-23.

‘세상에 맞설 불멸의 힘’ 성찬(聖餐), 은혜를 음미하다

- 성찬의 신비 중 하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작은 떡 하나에 주님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것, 불가능한 것과 맞설 힘이 생긴다. 주님이 이 작은 것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절망적인 세상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는 세상에 꺾이지 않는 불멸의 힘이다.
- 루터교회는 원칙적으로 매주 성찬을 한다. 루터교회가 성찬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성찬 자체를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배 전반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 후반부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진행된다. <국민일보> 2018-03-24.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

- 알렉산더 캠벨은 1846년에 주의 만찬이 “상징적,” “기념적”이며, 신자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속죄 되었다는 일종의 “매주 추억”이라고 진술하면서 “그것은 새로운 복들을 받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 W. B. 블랙모어(Blakemore)는 1960년대 초에 주의 만찬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보답하는 그들의 기념(기억)으로 보았다. 그는 주의 만찬에서 “기념의 역할은 주님을 우리의 현존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로 열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의 현존에로 불러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장

- W. R. 워커(Walker)는 기념의식이 계약갱신의 더 깊은 “엄숙한 서약”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의 만찬은 신자들의 죄가 이미 속죄된 것,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매주 추억”이다(알렉산더 캠벨, 1846). 또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는 그들의 기념(기억)이며, 주님을 우리의 현존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의 현존으로 불려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W. B. 블랙모어, 1960). 이뿐 아니라, 주의 만찬은 신자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기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다(W. R. 워커).

주의 만찬의 의미(고전 11:23-26)

-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매주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과 자비에 보답하며,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맺은 새언약을 더욱 새롭게 갱신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우리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다.
-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마움을 회상하는 것이므로 뇌는 그것을 습관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때마다 뇌내(腦內) 모르핀인 베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한다.

주의 만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침례의 중요성과 축복을 가르칠 수 있다. 침례와 관련해서 구원과 성령과 종말을 강조할 뿐 아니라,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응답이다(Eucharistia).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며,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다(Anamnesis).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됨을 체험하게 된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한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된 삶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과 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

주의 만찬은 성령의 임재를 비는 예배이다(Epiklesis).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현실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된다.

주의 만찬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교제의 시간이다 (Koinonia). 주의 만찬은 화해와 나눔의 시간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수조건인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터득 할 수 있다. 이 연대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평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성육신하심으로써 자기를 포기 하셨고, 인간들과 동일화 하셨을 뿐 아니라,

주의 만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그는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소외 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과 세리 또는 창녀들과도 함께 밥상공동체를 이루시며,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셨고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 정신을 본받도록 주의 만찬을 행하여 지킬 것을 부탁하셨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앞당겨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이다 (Anticipation).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이라면, 주의 만찬은 그 피로연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 할 수 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앞당겨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이다 (Anticipation).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이라면, 주의 만찬은 그 피로연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 할 수 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참여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성찬을 받지 못한다. 주의 만찬은 침례를 받고 구원에 동참한 자가 복음의 진수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고 있는지를 저울질할 수 있는 시험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만찬은 신앙의 신비를 선포한다.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찬을 받는 자의 신앙의 힘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주의 만찬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선 일종의 신비이다. 이 신비는

주의 만찬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성(聖)과 속(俗) 곧 교회와 세상을 구별한다. 이 엄격한 구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의 만찬의 중요성과 축복을 강조할 수 있다. 침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절차이고,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는 매일의 음식이다. 침례는 하나님과의 혼인식이고, 주의 만찬은 혼인식 이후에 갖는 매일의 식사이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매주일 행해야 하며 참여토록 해야 한다.

하비 C. 브림 (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Favorite Recipe: 좋아하는 조리법

1.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독교 본래의 참맛(행 20:7)

〈The Lost But Found Recipe: To Restore the True Flavor of Christianity〉

- 가족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즐겨 조리했던 어느 주부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부인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 조리법을 적은 쪽지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혼합했던 재료의 양을 기억을 더듬어 조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전만 못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쌓인 벽에 기대어 세워뒀던 그녀의 작업 캐비닛을 옮기게 되었고, 벽과 캐비닛 사이에서 조리법을 적은 쪽지를 발견하였다. 캐비닛 위에 올려놓았던 조리법이 캐비닛 뒤로 넘어갔던 것이다. 쪽지를 발견한 그녀는 물론 기뻐고, 그것을 주어서 먼지를 털 후에 탁자에 올려놓았다. 청소를 마친 후에 그녀는 조리법에 적힌 대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양과 동일한 방법을 써서 조리를 하였고, 예전의 맛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비 C. 브림 (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Favorite Recipe: 좋아하는 조리법

1.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독교 본래의 참맛(행 20:7)

〈The Lost But Found Recipe: To Restore the True Flavor of Christianity〉

-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은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기독교 본래의 참맛을 기록한 신약성서에서 되찾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독교 본래의 참맛 가운데 한 가지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How to Recognize Counterfeit: 위폐 구별법

2. 신약성서는 모든 교단들의 진위(眞僞)를 구별하는 잣대이다(딤후 3:14-17)

〈New Testament Is the Canon How to Recognize Counterfeits among Various Denominations〉

- 전 세계에 개신교 교단의 숫자가 2-3만개라고 한다. 굵직한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 만약 우리가 이들 교단의 진위를 파악하려 든다면, 평생토록 연구해도 다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진위는 고사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참과 거짓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교단들을 다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위조지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한 젊은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 젊은 사업가가 은행에 들어와서는 점객원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지점장과 접견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잡지 못한 그는 점객원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면서 말하였다. “내가 그 평범한 지폐로 모든 위폐를 어떻게 구별해낼지를 가르쳐드릴 수 있다고 지점장에게 말해 주시오.” 점객원은 명함과 지폐를 지점장의 호사스런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으며 그의 말을 전하였다. 지점장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였다. “음, 정말 평범한 지폐로군. 이런 5달러짜리 지폐가 이 은행에 수천달러는 족히 있을 텐데.” 그는 젊은이를 들어오게 해서 책상 앞에 세웠다. 지점장은 그 젊은이가 가방에서 온갖 종류의 위폐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는 그냥 호주머니 속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낸 후 펴서 책상 위에 놓으며 말하였다. “지점장님, 저한테 이 진짜 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지점장님은 단순히 대조해 보시는 것만으로 모든 위폐를 자동으로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환원운동은 지상의 모든 교단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평범하지만 진짜인 신약성서의 특징들에 대조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되찾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진짜인 신약성서의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Efficacy of Aspirin: 아스피린의 효능

3. 신약성서는 증상완화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근원치유를 위한 책이다(막 5:29)

〈New Testament Is Not for Relieving Symptoms Like Aspirin But for Curing Causes〉

- 아스피린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요즘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된다. 아스피린은 두통, 관절염, 당뇨, 티눈, 소화불량, 치통의 개선 또는 완화에 쓰이고, 해열과 심장마비, 뇌졸중 및 암 예방에 두루 쓰인다. 이처럼 뛰어난 약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뿐,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종교개혁과 환원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 동안 기독교의 질병을 완화하거나 개선 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스피린이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앓고 있는 질병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기독교를 택하셨고, 가톨릭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개신교를 택하셨다. 그러나 개신교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적 기독교로 변질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이 고질병은 고쳐졌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운동이 18세기 말에 시작된 신약성서교회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과 순수성을 되찾음으로써 교회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자는 운동이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A Geometry Formula: 기하학 공식

4. 예수님의 공생애 재현으로써의 기독교 예배(행 2:42)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전 생애, 즉 가장 위대한 예배의 삶이었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재현이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말씀의 예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주의 만찬 예배로 표현된다. 마르틴 칼러(Martin Kähler)가 복음서를 “긴 서론을 가진 수난사”라고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며, 갈릴리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기독교 예배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헌신했던 일은 이 네 가지였고,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의 예배가 먼저 나오고, “떡 떼” 즉 주의 만찬 예배가 나중에 나온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이자 예배의 핵심이었다는 증거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Too common: 너무 흔한

5. 주의 만찬을 매주하면 너무 흔한 일인가?(딤후 4:7-8)

〈Weekly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 Is Too Common?〉

-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순수한 원형이자 예배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주의 만찬을 매주하면 너무 흔해빠진 일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묻는다. 매주일 예배드리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이 되는가? 매주일 설교하면, 매주일 헌금하면, 매주일 찬양하면, 매주일 기도하면, 매주일 봉사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은 자주 할수록 성도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된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딤후 4:7-8)고 하였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를 완성시킨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이 예배에서 소홀히 되면, 그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Five Finger Exercise As A Salvation Process: 다섯 손가락 구원과정

6. 침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전 10:1-4)

<Only Christian Who Believed in Jesus, Repented, Confessed and Was Baptized Can Partake in Lord's Supper>

- 주의 만찬은 종말론적인 식사 즉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할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이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입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며 만나와 반석의 샘물을 마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홍해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다섯 손가락 설교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Five Finger Exercise As A Salvation Process: 다섯 손가락 구원과정

6. 침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전 10:1-4)

<Only Christian Who Believed in Jesus, Repented, Confessed and Was Baptized Can Partake in Lord's Supper>

- 다섯 손가락 설교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섯 가지 과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바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인 것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Three Legged Stool: 세 다리 걸상

7. 예배에서는 설교만이, 구원에서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가?(행 2:42)

〈Sermon Only in the Worship and Faith Only in the Sal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전설의 새인 세 발 까마귀 즉 삼족오(三足鳥, three-legged bird)를 태양의 신으로 널리 숭배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지의 배꼽(Omphalos)이라 여겼던 델포이(Delphi)에 아폴론 신전을 짓고, 그가 맡긴 사람들의 운명 즉 신탁(神託, oracle)을 여사제(祭尼) 휘티아가 세 다리 걸상(tripod)에 앉아서 풀어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세 다리 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는 어떤 것일까? 세 다리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 다리 한 개나 두 개로는 의자가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 만찬과 침례의 중요성을 말할 때 세 다리 걸상을 인용하여왔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Three Legged Stool: 세 다리 걸상

7. 예배에서는 설교만이, 구원에서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가?(행 2:42)

〈Sermon Only in the Worship and Faith Only in the Sal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 신약성서교회는 예배 때 사도의 가르침(설교), 교제, 떡 떼(주의 만찬), 기도(찬양)에 헌신하였고, 이것들을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로 인정하였다. 또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섯 가지를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다섯 가지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며 행위와 무관하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바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인 것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Scaffolding: 비제(가설발판)

8.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유일한 공동장소는 신약성경이다(딤후 3:15-17)

〈The New Testament Bible Is the Only Common Meeting Ground upon Which All Believers Can Stand〉

- 가톨릭은 1950년대까지 과거 1400년간 예배에서 설교를 빼버린 채 주의 만찬(Lord's Supper)을 제사예배(Eucharist)로 왜곡시켜 중시해왔다. 이것에 반발한 개신교는 과거 500년간 주의 만찬을 무시한 채 말만 풍성한 기도회를 중시해왔다. 이런 왜곡은 초기 500년간 지속된 균형예배, 즉 설교와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했던 사도전통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다. 이에 세계교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예배갱신에 노력하여왔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한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1700년대 말부터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야할 유일한 공동장소가 성경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신약성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신약성경은 기독교를 완성시킬 최종 전경으로써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집과 같아서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비 C. 브림(Harvey C. Bream)의 환원운동사 강연에서 뽑은 예화들

***Scaffolding: 비계(가설발판)

8.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유일한 공동장소는 신약성경이다(딤후 3:15-17)

〈The New Testament Bible Is the Only Common Meeting Ground upon Which All Believers Can Stand〉

- 만일 집주인이 집을 완성한 후에도 사용했던 비계(가설발판)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완성된 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약성경(사도전통)의 중요성을 말할 때 비계를 인용하여왔다. 현대화란 변명으로 신약성경에 사람이 뭔가를 빼거나 더하는 것은 마치 건축을 마친 집주인이 비계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